“선거는 종도 생각 중요…엄정 관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출마, 마음대로 되는 일 아냐”
가능성 시사…“평가는 종도 몫”
발우공양 미쉐린 쓰리스타 목표
열암곡 마애불 존치 방향도 검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올해 치러지는 주요 선거를 언급하며 엄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했다.

글=김내영 기자 · 사진=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종단 내 주요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종헌·종법에 기반한 엄정한 선거관리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주요 선거를 앞둔 종단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해 왔고, 불교와 종단을 아끼는 종도들의 성원 덕분에 화합된 종단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며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종단 차원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모범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차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3년간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게 애써 왔지만, 그 평가 역시 종도들의 몫”이라며 “의지가 너무 지나치면 과욕이 돼 오히려 피해를 준다. 반면 의지 없으면 무능력하고 신뢰받을 수 없다. 그 선상에서 잘 조율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사회적 해악이 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종교가 신성불가침이라지만, 종교 역시 국가와 헌법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1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실천 활동을 확대에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겠다. 이것이 포교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선재 스님이 출연하며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진우 스님은 “한국적인 사찰음식을 세계화해 선명상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쓰리스타를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가자 증가를 위한 종단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99명의 출가자를 배출했다”며 “올해 3월 사미계 전반기 수계자가 60명을 넘었고, 연말까지 100명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출가자가 대폭 늘고 있다. 출가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입불을 목표로 하되 문화유산 보존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우 스님은 “오랜 세월 누워 계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국운이 융창하고 불교가 중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사가 시작됐다”면서도 “경주시와 경상북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불상에 균열이 확인될 경우, 입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만간 정밀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불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현 상태를 유지해 참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불교 문화유산 재난 대응 강화
공익 수익사업으로 재정 안정화

아울러 유물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 수장시설과 보존처리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과 충청권 수해, 강릉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고운사를 비롯한 다수의 불교유산이 피해를 입은 만큼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과 목조 성보가 다수 존재하는 사찰의 특성을 고려해 규모와 지형에 맞는 재난 대응 설비와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사, 말사, 지형(산지·평지·도심지) 등을 구분해 국가유산 보유사찰의 유형을 나누고 각 사찰에 설치된 재난 안전 설비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재난 안전 설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이 같은 불교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선명상·콘텐츠·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공익적 수입사업을 확대해 종단의 재정적 토대 안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 수익을 수행과 포교, 복지, 교육으로 다시 환원해 국민께 나눔으로 되돌려 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올해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종단 주요 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종단 선거가 종헌과 종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새로운 출범과 변화가 화합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선출 문화의 모범을 보이고, 안정된 종단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내영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에 재안 스님 선임

1월 13일 제364회 이사회 결의
성 비위 WISE캠 교수 중징계 회부
덕문 스님 사임…5000만원 기부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에 내소사 주지 재안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는 1월 1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4회 이사회를 열고 오는 4월 24일 임기만료 예정인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제236회 정기회에서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과 성원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을 복수 추천했다.

재안 스님은 원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사미계, 199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2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장, 안양사·개암사·동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이며 내소사 주지, 중앙종회 사무처장 소임을 맡고 있다.

상정된 ‘교원 징계의결 요구의 건’에서 이사회는 학생 강제 추행 등 성(性) 비위로 문제가 된 WISE캠퍼스 불교학부 A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A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견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성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 해임, 정직 중에서 양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교원 인사 승인 △2025 회계연도 각급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료원 긴급치료병상 부기등기 승인 △의료원 긴급치료병상 부기등기 승인 등에 대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노력과 정진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올해 병오년은 붉은 말, 적토마의 해이다. ‘적토마’는 정진과 지혜, 실천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동국대 건학이념과도 맞닿아 건학 120주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동국의 해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산하기관 모두 적토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실천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직에서 사직한 덕문 스님(화엄사 빛고을포교원 회주)은 학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기금 전달은 덕문 스님을 대신해 이사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이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공모

1월 21일까지 이메일 · 팩스 접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봉축표어는 기본 표어인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함께 사용되며, 매년 사회적 상황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해 선정된다.

이번 봉축표어 공모는 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자 수는 10자 내외로, 1인 최대 1개까지 응모 가능하다. 다만 동일 표어일 경우 먼저 접수한 응모작으로 선정된다.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LLF@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종단 내부심사를 거쳐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인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3~10명의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봉축위원회는 “중생구제 염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이 시대와 함께하는 봉축표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시왕전 위패인등 봉안 안내

- 24시간 인등을 밝혀 드립니다 -



위패인등 접수 안내



◀ 생체보석 위패인등
고인 및 가족의 생체를 담아 보석형태로 제작
제작비 : 200만원
(제작기간 약 30일)



◀ 목위패 인등
위패인등 내부 유품 봉안 가능
제작비 : 20만원
(제작기간 약 10일~20일)

공통사항
- 위패 인등비 : 월 2만원 (CMS로만 납부 가능)
- 1인 1위패인등
- 24시간 위패인등 및 염불 극락왕생 기원
- 축원 : 시왕전 사시예불 축원 (음력 19~23일, 5일간)
- 위패인등 위치 예약 가능

[위패인등 관리 규정]
- 위패인등 제작비는 접수시 일시납이며, 현금/카드/무통장입금가능합니다. 단, 위패인등비(월 2만원)는 CMS 이체만 가능합니다.
- 취소 및 환불규정 : 1주 이내 취소가능
- 위패인등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위패인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위패인등 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문 의 접수처 담당자 010-9822-3218 계 좌 신한은행 140-005-663446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